

충남 아산 둔포중학교 여학생들이 성추행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3학년 7아무개(16)양은 지난 11일 학교로 찾아간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학교앞 서점 주인을 혼내달라”고 호소했다. 0아무개(16)양도 “서점 주인을 고소해야 한다”며 “학교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정을 지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달 29일 밤 9시경 3학년 7아무개(15)양이 학교앞 서점에 공책을 사러 들렀다가 주인 8아무개(52)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7양은 “아저씨가 갑자기 옆에서 끌어 안으며 오른손을 청재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더듬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7양은 또 “손을 뿌리치자,

“학교앞 책방주인이 성추행”

아산 둔포중 학생들 “가슴 엉덩이 더듬어”

학교쪽 “시골에선 흔한일”대책 미적미적

서점 밖까지 따라와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었다”고 말했다.

7양은 이를 뒤 담임교사에게 이를 알렸다. 담임은 우선 자신의 학급 여학생 4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6명의 여학생이 같은 서점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교사가 강력히 주장하자 학교는 지난 5일 여학생 전체를 상대로 다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전체 여학생 2백70명 중 15명이 서점에서 비슷한 추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동

일 인물이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장·교감 등은 그러나 “방과 뒤에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교사들은 전했다. 일부 교사가 “단순 성추행 역시 범죄라는 인식없이 방치되면 성폭행으로 발전하는 법”이라며 경찰 신고, 학부모 총회 등을 주장했으나 일주일째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광호 교장은 지난 11

일 기자와 만나서도 처음에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볼을 만지는 정도는 시골에서 흔한 일”이라며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판단한 탓인지 조 교장은 다음날부터 서점주인을 찾아가 학생들의 불만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 서점 주인 8아무개씨는 “7양의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으며 다른 아이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물렀을 뿐”이라며 “다 아이들이 이빠서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문제삼는지 모르겠다는 투였다.

한 교사는 “학교당국자들의 ‘조용한 게 좋다’는 식의 태도와 성추행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사고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96.7.16